

2013년 7월 15일 보낸 편지입니다.(4,988조회)

라이브 무대
ライブの舞台

언젠가 공연계에서 일하는
ある日公演界で働く

고객이 내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顧客が私にこんな言葉を聞かせてくれた

“노래를 잘하는 가수의 가창력 비결이 뭔지
”歌がうまい歌手の歌唱力の秘訣がなにか

아십니까? 라이브 무대에 자주 서기 때문입니다.
ご存知ですか?ライブ舞台によく立っているからです

노래를 잘해서 라이브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歌がうまいのでライブ公演をするのではなく

라이브 공연을 자주 하다 보니
ライブ公演をよくしてみたら

노래를 잘하게 된 거죠.”
歌がうまくなったのです”

나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私はその言葉に深く共感した

- 이근우의《세상은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중에서 -
- イ・グヌの<世の中は絶対あなたをあきらめない>より -

* 저도 공감합니다.
* 私も共感します

꿈을 가진 사람은 '라이브 무대'가 필요합니다.
夢を持った人は'ライブ舞台'が必要です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펼쳐보여야
人々の前に立って自分が夢見た世の中を広げ

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지만
なければなりません。初めは、恐ろしく、おびえて、振れが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사람 앞에 서게 되면
1回、2回、繰り返して人の前に立つようになると

이내 두려움도 사라지고, 자신감과
たちまち、恐ろしさも消え、自信感と

내면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内面の確信を持つようになります

꿈이 이루어집니다.
夢もかかないます。

공연 (公演)

[명사] 公演.

펼치다

[타동사] 広げる; 繰り広げる; 延べる.

두렵다

[형용사]

(무서움) 怖い; 恐ろしい.

(염려) 心配だ.

(외경) 威風があつて恐れ入る.

떨다1

[자동사][타동사]

(흔들리다, 흔들다) 震える; 震わす; 小刻みに揺れる[...]

(두려워) おののく; おびえる.

(몸을) 寒さ・恐ろしさ・怒りなどで, からだなどを震わ...

이내3

[부사]

たちまち; 立ち所に; 間もなく; すぐ; ただちに.

その時から続いての意: この方; 以来; ずっと.

すぐ近くに.

2013년 7월 16일 보낸 편지입니다. 이전편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
信じられない驚く贈りもの

우리는 우주가
我々は宇宙が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我々を驚かせ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そうすれば我々は信じることができない贈り物を受けるだろう

우리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我々が望めば、受けることができるのが宇宙の法則だ

우주는 반응하게 되어 있다. 요청하고 그것이
宇宙は反応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望んでそれが

올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来るように、許容しなければならない

- 마벨 카츠의《호오포노포노, 평화에 이르는 가장 쉬운 길》중에서 -
- マベル・カツの〈ホ・オポノポノ、平和に至る一番簡単な道〉より -

* 우주는 선물 보따리입니다.
* 宇宙は贈りものの包みです

우리에게 줄 선물을 가득 담아두고
我々への贈りものをいっぱい満たして

누구에게 줄까 살피다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誰にあげるか、見守って受ける準備ができています

사람에게만 보따리를 풀어 하나씩 건네 줍니다.
人にだけ包みをほどいてひとつずつ渡してあげます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
自らも信じることができない驚く贈りもの!

문을 열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扉を開いて待つ人にだけ

우연처럼 주어집니다.
偶然のように与えられます

보따리 (褌—)
[명사]
包み; くるみ.
(依存名詞的に) 包みを数える語.

2013년 7월 17일 보낸 편지입니다.

천천히 글 쓰고, 천천히 커피 마시고...
少しずつ文章を書いて、少しずつコーヒーを飲んで

나는 요즘 천천히 글을 쓰고 싶다.
私は、最近少しずつ文章を書きたい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마치 옛날의 스님들이
すこしづつ、そしてきちんと。まるで昔の師匠が

경판을 새길 때 한 자의 글을 새기고 절을 삼배 올리고,
経版を刻むとき、文字を刻んで節に三礼をあげて

한 권의 경전을 새기고 목욕재계하였던 것처럼...
一冊の経典を刻んで清めていたかのように...

글뿐 아니라 삶 자체도 그렇게 변화해서 살고 싶다.
文字だけではなく、人生自体もこのように変化させていきたい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천천히 차를 몰고,
少しずつコーヒーを飲んで、車を走らせ

천천히 책을 읽고, 천천히 밥을 먹고,
少しずつ本を読んで、少しずつご飯を食べ

천천히 잠을 자고, 그러나 그
少しずつねて、しかしその

천천함이 지나치지 않게.
すこしが度を過ぎないように

- 최인호의《산중일기》중에서 -
- チェ・インホの<山中日記>より -

* 한 시대를 풍미한
* 一つの時代を豊かで美しい

노작가의 말이 좋은 가르침을 줍니다.
老作家の言葉がいい教えを与えます

커피도 후루룩 한숨에 마시면 맛을 못 느낍니다.
コーヒーも一息でのめば、味を感じることができません

천천히 찻잔을 씻고, 천천히 물을 붓고, 천천히 물을
ゆっくり茶碗を洗って、ゆっくり水を注いで、ゆっくりお湯を

끓이고,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천천히 향을 느끼고,
わかして、ゆっくりコーヒーを入れれば、ゆっくり香りを感じ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고... 그런 모든 과정이
一口づつ少しずつゆっくり飲んで...このようなすべての過程が

새로운 맛과 멋, 여유와 행복을 안겨줍니다.
新しい味と趣き、余裕と幸福を抱かせてくれます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私'をあけて'あなた'を満たす

시간이 됩니다.
時間になります

또박또박2

[부사]

きちんきちんと.

(曖昧でなく)はっきりと; 正確に.

日限や順序などをたがえないさま; また, 番を欠...

경판 (經板)

[명사] 經書の版木.

새기다1

[타동사]

刻む.

(파다) (物に)刻みつける; 彫る; 彫りつける; 彫り込...

(마음에) (心に)刻みつける; 記す; 記する; 銘ずる...

삼배 (三拜)

[명사]

三拜.

三礼; 三度礼をすること.

[불교] 三度ひざまずいて拝礼すること.

ぎょうずい [行水] 재생

1. 목욕재계(齋戒). (=潔齋) 2. (데운) 물을 부은 큰 물통에 ...

풍미하다 (豊美—)

[명사] 豊かで美しい. (=풍염(豊艶)하다)

차잔 (茶盞)

[명사] 湯飲み(茶碗); 茶飲み(茶碗).

씻다

[타동사]

(물로) (水などで)洗う; 流す.

(물기를) ぬぐう; 拭く.

(오욕을) すすぐ; そそぐ; 清める.

멋

[명사]

(몸매) 洒落; 粹.

(풍류) 風流; 風雅; 趣; 味わい. (→멋없다)...

2013년 7월 18일 보낸 편지입니다.(600조회)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不足な人'だから

여자고 남자고
女性と、男性と

완벽한 사람은 없다.
完璧な人はいない

따라서 어느 누구도 완벽한 관계라든가
だから、どの誰も完璧な関係とか

완벽한 사랑법이라고 꿈꾸어 온 것에 따라
完璧な愛し方を夢見て来たことに基づいて

행동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는 제각각 나름대로
行動することはできない。我々にはそれぞれ、私なりに

부족한 점이 있고, 따라서 우리는 싫어도
不足な点があって、だから我々はいやでも

실패를 인정하고 한계를 수용할
失敗をみとめてして限界を許容

수밖에 없다.
するしかない

- 제임스 F. 매스터슨의《참자기》중에서 -
- ジェームス・F. マスターソンの〈真の自分〉より -

* 완벽하지 않고
* 完璧でなく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不足な人だから

서로 기대고 서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お互いよりそって、お互い満たして生きていきます

완벽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품어주고,
完璧な愛でないから、さらに深く抱いて

더 오래 기다리고, 가려주고 덮어줍니다.
長く待って、選んでさえぎってくれます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의 시작이라고
失敗はさらにほかの成功の始まりと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信じるから絶望しません。

한계를 알기 때문에 더 큰
限界をわかるからさらに大きな

용기로 도전합니다.
勇氣に挑戦します

채우다3

[타동사]

[‘차다’의使役]

(보태다) 補う; 埋め合わせる.

(가득차게 하다) 満たす; 詰める.

가리다2

[타동사]

(골라내다) 選ぶ; 選(え)る; 選(え)り分ける; 分かつ.

(낮을) 人見知りする; 人おじする; なつかない.

(셈을) (勘定を)済ます; 清算する; 支払う; ...

덮다

[타동사]

覆う.

(덮어씌우다) (覆い)かぶせる; 伏せる.

(뚜껑을) 蓋をする.

2013년 7월 19일 보낸 편지입니다. 이전편지

자기 재능의 발견
自己才能の発見

우리는 특정한 재능과
我々は特定の才能と

운명의 부름을 혼동해선 안 된다.
運命の呼びかけを混同してはいけない

특정한 재능이란 메뉴인의 바이올린,
特定の才能とは、メニューインのバイオリン

에드워드 텔러의 물리학, 혹은 헨리 포드의 기계공학
エドワード・テラーの物理学、もしかしてヘンリー・フォードの機械工学

같은 것이다. 재능은 단지 이미지의 한 조각일 뿐이다.
のようだ。才能はただ、イメージのかけらに過ぎない

많은 사람이 운명의 부름을 받지만, 극소수만이
たくさんの人が運命の呼びかけを受けるが、ごく少数だけが

선택을 받는다. 즉 재능 있는 사람은 많지만
選択を受ける。すなわち才能がある人は多いが

그 재능을 실현할 수 있는
その才能を実現できる

사람은 극소수다.
人はごく少数だ

- 제임스 힐먼의《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중에서 -
- ジェイムズ・ヒルマン〈私は何を望むか〉より -

* 자기 재능의 발견!
* 自己才能の発見!

자기 운명의 부름을 받은 순간입니다.
自分の運命の呼びかけを受ける瞬間です

그 부름을 받았지만 끝내 선택되지 못하고
その呼びかけを受けたが、ついに選択できず

피다만 꽃처럼 되고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咲くだけの花のようになる人が少なくありません

어떤 우연, 어떤 필연으로 누군가 좋은 사람과 만나
ある偶然、必然で、誰かいい人と会って

타고난 자기 재능의 조각을 발견하고, 선택받고,
生まれつきの自己才能のかけらを発見して、選択を受け

실현하고, 마침내 화려하게 꽃피울 때
実現して、ついに華やかに花咲くとき

20130719.txt

재능과 운명은 하나가 됩니다.
才能と運命がひとつになります

부름

[명사] 呼び掛け; 呼び; 呼び出し.

혼동 (混同)

[명사] 混同.

極少数 재생 (표제어:극-)

극소수

2013년 7월 20일 보낸 편지입니다.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추은진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チュ・ウンジ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아름다운 마무리
美しい仕上げ

아름다운 마무리는
美しい仕上げは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最初の心に戻ることだ

일의 과정에서, 길의 도중에서 잃어버린 초심을
仕事の過程で、道の途中で失われた初心を

회복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근원적인 물음
回復するのだ。美しい仕上げは根源的な問い

'나는 누구인가?'하고 묻는 것이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私は誰か?'と問うのだ。人生の瞬間瞬間で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하는 물음에서
'私はどこへ言っているのか?'という問いで

그때그때 마무리가 이루어진다.
その時その時、仕上げおこなわれる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다.
美しい仕上げは空きだ

비움에 다가가는 것이다.
空気に近づくのだ

- 법정의《아름다운 마무리》중에서 -
- 法頂の〈美しい仕上げ〉より -

* 매사에 시들해졌을 때
* 万事が下火になった時

처음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다면,
初めの心を思い浮かべることができれば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비움으로써
動いていたことを降ろして、空きで

욕심이 사라질 수 있다면, 마음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미움을
欲をなくすことができれば、心の片隅に占めている憎悪を

비움으로써 자유로와질 수 있다면, 새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空きで自由にできれば、新たに浮かぶ太陽を見て

20130720.txt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私は誰で、どこへ行くのか?'を考えるとできれば

우리는 매일매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듯
我々は毎日毎日美しく仕上げるように

살 수 있지 않을까요?
生きることだできないでしょうか?

시들해지다細くなる

2013년 7월 22일 보낸 편지입니다. 이전편지

'야하고 뽀뽀하게'
粗野で厚かましく

정신분석을 받을 때 면담자는 내게
精神分析を受けた時面談者は私に

'야하고 뽀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粗野で厚かましく'してくれといった

그 말이 내 생의 모든 열쇠가 들어 있는
その言葉が私の人生のすべてのカギが入っている

지점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ポイントだという事実を直感的に気付いた

야하고 뽀뽀해져야 한다는 명제를
粗野で厚かましく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命題を

삶의 당위적 목표로
人生の当為的目標に

받아들이기로 했다.
受け入れることにした

- 김형경의《사람풍경》중에서 -
- キム・ヒョンギョンの<人の風景>より -

* '야하고 뽀뽀하게'
* '粗野で厚かましく'

얼핏 안 좋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ふとあまり良くない感じで近づきます

그러나 때때로 삶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しかしたまに、人生の重要なカギになります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愛する人の前では、さえぎらないままで

부모 앞의 자식들은 뽀뽀한 믿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両親の前の子供は、厚かましい憎しみをそのまま表します

사람이 늘 야하고 늘 뽀뽀하게 살 수는 없지만
人がずっと粗野で、ずっと厚かましく生きることができないが

우리들 삶의 한 요소로 당당히 받아들이면
我々の人生の一つの要素を堂々と受け入れれば

삶의 매력과 활력을 높여주는
人生の魅力と活力を高める

윤활유가 될 수 있습니다.
潤滑油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

야하다 (野—)

[형용사]

品に欠けて卑しい; 俗っぽくて浅薄だ; 粗野(そ...

薄情で利にさとい.

뻔뻔하다

[형용사]横着だ; 厚かましい; ずうずうしい; ふてぶてしい.[작은말...

直感的に気づいた 재생 (표제어:직감적)

직감적으로알아차렸다

당위 (當爲)

[명사][윤리] 当為.

얼핏

[부사]ちらと; ちらりと; ふと; ふっと.(=언뜻)

가리다1

[자동사][타동사]遮る; 覆う; 隠す; 塞ぐ.

2013년 7월 23일 보낸 편지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
雨が降る日

비가 내립니다.
雨が降ります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こんなに雨が降る日なら

우산을 받쳐 들고 골목골목 숨어
傘を広げて、路地ごとに隠れて

있는 작은 갤러리 순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いるちいさなギャラリー巡りをするのはどうでしょうか

대형 미술관에서 열리는 유명 전시회도 좋지만,
大型美術館で開かれる有名展示会もいいが

꼬불꼬불 골목마다 자신만의 보물을 찾듯 다녀보면
くねくねの路地ごとに自分だけの宝物を探すように歩けば

평범한 일상 속에선 생각지도 못한 진짜 보물 같은 시간을
平凡な人生の中では考えられない、本当の宝物のような時間に

만나게 될지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비 개인 오후 갤러리 앞
会うようになるかもしれないです。そして、雨やんだ午後ギャラリーの前で

작은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한잔의 여유도
小さなカフェで飲むコーヒー1杯の余裕も

덤으로 누리보시길.
おまけで享受するように

- 유별남의《길에서 별을 만나다》중에서 -
- 그・ビョンナルの〈道で星に会う〉より -

* 웅달샘에도 비가 내립니다.
* 小さな泉にも雨が降ります

비에 씻긴 초록빛 나뭇잎이 젖은 마음을 달래주고
雨に洗われた緑の木の葉が小さい心を慰めて

웅달샘 카페 커피향이 더 향기롭고 맛있게 다가옵니다.
小さな泉のカフェのコーヒーの香りが、さらにかぐわしく、おいしく近づきます

갤러리를 찾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은
ギャラリーを探して、コーヒー1杯の余裕を楽しむのは

비오는 날만 아닙니다. 구름끼고 바람부는 날,
雨降る日だけではありません。曇って風吹く日

활짝 개인 날. 어떤 날이든 여유를 가지면
すっかり晴れた日、どんな日でも余裕を持てば

하루하루가 모두 덤이고,
一日一日が、すべておまけで

행복입니다.
幸せです

갤러리 (gallery)

[명사] ギャラリー; 画廊.

보물 (寶物)

[명사]

宝; 宝物; ほうもつ; 宝財.

昔から引き継がれ, 国宝に次ぐ重要...

덤

[명사]

お負け; 景品.

(碁で)込み.(=공제(控除))

누리다1

[타동사](富貴·長寿などを)うける; 享受する.

雨に洗われた歩道 재생

비에 씻긴 보도

달래다

[타동사]

(위로하다) 慰める; 紛らす.

(좋은 말로) 宥める; すかす; あやす.

よく晴れた日 재생 (표제어:활짝)

활짝 갠 날(씨)

2013년 7월 24일 보낸 편지입니다. 이전편지

코앞에 두고도...
鼻の前でも...

우리가
我々が

눈이 있어
目の前に会って

사물을 보게 되고,
事物を見るようになり

귀가 있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耳があって、音を聞くことではなく

보려는 '욕망'이 눈을 만들었고, 들으려는 '의지'가
見ようとする'欲望'が目を作って、聞こうという'意志'が

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보려는
耳を作ったといえます。そうじゃないですか。見ようとする

욕망이 없으면 사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欲望がなければ、事物を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

코앞에 두고도 언제 있었더냐 싶지요.
鼻の前でも、いつあったのかと思うでしょう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耳も、鼻も、舌も、意識も

다 그렇습니다.
みなそうです

- 한형조의《붓다의 치명적 농담》중에서 -
- ハン・ヒョンジョの<ブッタの致命的冗談>より -

* 코앞에 두고도
* 目の前でも

못 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見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がとても多いです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目があっても見えず、耳があっても

듣지 못합니다. 놓치고 잃어버린 다음에,
聞こえません。失って、なくした後に

영영 떠나버린 다음에야 보이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永久に去った後に、見えて現れはじめます

그러나 이미 때를 놓쳤고, 회한만 남습니다.
しかし、すでに時を逃して、後悔だけのこります

코앞에 있을 때 보고 듣고 느끼십시오.

鼻の前にあるとき、見て聞いて感じてください

눈, 귀, 코, 오감, 육감, 심감을 열어

目、耳、鼻、五感、六感、十感を開いて

느끼고 품으세요.

感じて抱いてください

놓치다

[타동사]

(기회·범인·손님 따위를) 逃がす; 逃す; 逸する.

(버스 따위를) 乗りそこなう; 乗り外す; 乗り遅れる.

(보는 것을) 見失う; 見逃す; 見過ごす[노인어].

잃어버리다

[타동사]なくしてしまう; 失う.

영영 (永永)

[부사]永永; 永久に; いつまでも; とわに.[준말]영(永).

떠나다

[자동사][타동사]

去る.

(딴 곳으로) 離れる; 立つ; 出る; 発する.

(이탈) (關係などを) 断つ; 離れる; 止める; 辞する.

2013년 7월 25일 보낸 편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극복하다
息子が父を克服する

아들은
息子は

인생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야
人生のある瞬間に至って

아버지의 삶을 들여다볼 눈을 뜨게 된다.
父の人生をうかがう目を開くようになります

아들도 아버지처럼 실수도 실패도 해보고
息子も、父のように失敗もしつつ

후회도 하는 동안 아버지가 결코 완벽한
後悔しながら父が決して完璧な

존재일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된다.
存在ではないのを気付くようになる

그 깨달음과 연민은 아버지를
その悟りと憐憫は父を

극복하는 디딤돌이다.
克服するステップだ

- 오태진의《사람향기 그리운 날엔》중에서 -
- オ・テジンの〈人の香り懐かしい日に〉より -

* 아들이 자라나
* 息子が育って

아버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父になった時、父を理解するようになります

아버지가 왜 울고 왜 아파했는지 알게 됩니다.
父がなぜ泣いて、父がなぜ辛いのかわかるようになります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땀과 눈물을 비로소
父の人生、父の汗と涙をようやく

이해하고 아버지를 극복하게 됩니다.
理解して、父を克服するようになります

아버지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父は完璧な存在ではありません

넘을 수 없는 태산이 아닙니다.
超えられてない泰山ではありません

작은 언덕입니다.
ちいさな丘です

들여다보다

[타동사]

のぞく.

(안을) (中を)의ぞ키見る; うかがう.

(들르다) (ちょっと)見る; ちょっと立ち寄って見る.

연민 (憐憫·憐愍)

[명사] 憐憫[憐愍](れんびん).

ふみいし [踏(み)石] 재생

1.땃돌; 디딤돌. 2.보석(歩石); 섬돌; 징검돌.(=飛び石)

2013년 7월 26일 보낸 편지입니다. 이전편지

당신의 몸에서는 어떤 향이 나나요?
あなたの体からはどんな香りが出ますか?

고대 이집트 시대 이후로
古代エジプト時代以後で

우리는 남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我々は、他人の注目を集めるため

자신의 몸을 냄새로 장식해왔다. 하지만 굳이
自分の体を香りで装飾してきた。しかしあえて

향료와 꽃, 식물에서 추출한 방향유로 우리의 몸을
香料と花、植物から抽出した芳香油で我々の体を

칠하느라고 법석을 떨 필요가 없다. 우리 몸에서 나는
塗ろうとしてさわぐ必要はない。我々の体からでる

자연스러운 향이 정원에서 뽑아낸 향기보다
自然な香りが、庭園からあふれ出すか香りより

서로에게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お互いに未来を呼び起こすのに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はるかに有用だからだ

- 레이첼 허즈의《욕망을 부르는 향기》중에서 -
- レイチェル・ハーツの〈欲望を呼ぶ香り〉より -

* 냄새가
* 향기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その人を教えてください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
何を食べているのか、どこに行ってきたのか

냄새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꽃밭을 다녀온 사람과
香りですぐわかります。花畑に行ってきた人と

진흙밭을 다녀온 사람의 냄새는 전혀 다르지요.
土畑に行ってきた人の香りは全然違うでしょう

좋은 음식, 좋은 차 마시고 좋은 생각하면서
いい食事、いい茶を飲んでいい考えをしながら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땀 흘린 사람의
熱心に愛して、熱心に汗を流した人の

몸에서 자연스럽게 풍겨나는 냄새가
体から自然に豊かな香りが

가장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一番香しく美しいです

장식 (裝飾)

[명사] 裝飾; 飾り付け; しつらい.

ぬりなおす [塗(り)直す] 재생

(칠한 데를) 다시 고쳐 칠하다.

꽃밭

[명사]

花畑; 花園.(=화전(花田))

[속어] 若い女の多い所.

법석

[명사] わいわい[がやがや]と騒ぐさま.

2013년 7월 27일 보낸 편지입니다. 이전편지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박남석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パク・ナムソク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영경귀 노래
アザミの歌

들꽃이거든 영경귀이리라
草花だから、アザミだろう

수없이 밟히고 베인 자리마다
数多く踏まれて、切られた場所ごとに

돋은 가시를 보리라
生えたとげをみるだろう

하나의 사랑이 꽃이기까지
一つの愛が花まで

우리는 얼마나 잃고 또 떠나야 하는지
我々ほどれだけなくして、また去っているのか

누군가 또 잃고 떠나 앓는 가슴 있거든
誰か、また失って去って、患う心があるから

그 가슴 속 보랏빛 꽃으로 맺히리라
その心の中で紫色の花で結ばれるだろう

- 복효근의 시 《영경귀 노래》중에서 -
- ホク・ヒョグンの詩<アザミの歌>より -

* 짐짓 돋보이려고 하진 않아도
* あえて飾らなくても

가시처럼 저절로 돋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枝のように、おのずから目立つことがあります

삶의 정답을 말하거나 답변하기에 난처한 일도
人生の正答をいったり、回答するのに難しいことも

아주 많습니다.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꽉 찬 물병이기보단,
とても多いです。これ以上満たすことができないぎっしり詰まった水筒よりは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빈 병이기를 원합니다.
さらに美しいことで満たすことができる空瓶を望みます

우리들의 삶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我々は人生にはとても多くの人の汗と涙が

그리고 희생이 뒷받침했음을 잊어선
そして犠牲が後ろ盾だったのを忘れては

아니 되겠습니다.
ないでしょうか。

영경귀

[명사][식물] カラノアザミ; ノアザミ(野薊).(=야홍화(野紅花))

들꽃

[명사]野花.(=야생화)

돌다1

[자동사]

(해 등이) 昇る.

(생겨남) 生える; 芽生える(특히, 싹이).

(피부에) 吹き出る; できる.

보랏빛

[명사]紫色; 紫; パープル.[준말]보라.

맺히다

[자동사]

[‘맺다’의受け身](열매 따위가) 結ばれる.

(마음이) (忘れられずに)胸にこびりつく; 心に抱く; ...

(이슬 따위가) (露・涙などが)しずくになる.

짐짓

[부사]わざと; 故意に; 殊更(に).

돋보이다

[자동사]目立つ; 見ばえがする; 引き立って見える.

저절로

[부사]自然(に)と; おのずと; おのずから; ひとりでに.[준말]절로.

꽂

[부사]

(단단히) 強く押しつけたり握ったり縛りあげるさま: き...

(가득 차게) ものの満ちて[詰まって]いるさま: ぎっしり; びっしり; ...

(참는 모양) 苦しみを堪え忍ぶさま: ぐっと; きゅっと; じっと...

차다1

[자동사]

満ちる.

(가득하게 되다) みなぎる; 一杯になる; 塞がる.

(이지러진 데 없이) (円いものが)欠けたところがない.